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모드』 : 빅토리아 시대 시인의 자기 단념과 자기표현

하 명 자
(부산대학교)

I.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라는 명칭은 현대인의 의식에 지루함, 따분함, 금지와 억압의 세계관을 떠올리게 한다(Bristow xvi). 엄격히 계급이 분리된 사회에서 품위, 체면, 검소함과 끊임없는 도덕성을 강조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의 부, 권력, 문화가 엄청나게 팽창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적이고 역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의식과 환경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1750년 이후 영국의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여 철강, 광산, 면화 부분에서 특히 발전하였고 1851년경에는 영국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여 세계의 공장(workshop of the world)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종교적인 면에서 빅토리아 시대는 제도적인 기성 교회에 대한 의심과 회의의 시대의 문을 열었다. 신앙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영국 교회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고교회파(High Church)의 부흥운동인 옥스퍼드 운동(Oxford Movement), 저교회파(Low Church)의 복음주의 운동(Evangelical Movement), 광교회(Broad Church)가 널리 전파되었다. 즉, 저교회의 복음

주의가 부흥하자 이에 맞서 고교회의 옥스퍼드 운동은 교회의 의식(rituals)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중세시대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고 있다고 자부했고, 그들 사이에 여러 의견을 넓게 받아들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광교회가 있었다.

이념, 정치, 사회의 면에서 빅토리아 시대인들은 공리주의, 과학적인 불가지론, 민주주의, 여성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형성 등 놀라운 혁신과 변화를 창출해낸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 마르크스(Karl Marx),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현대의 문제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 해결책을 시도했던 인물들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사상, 이념의 모태가 태동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과 성장 뒤에는 불확실성과 회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랜도우(George Landow)는 이 시대를 역설과 힘의 시대(an age of paradox and power)라고 불렀다. 과연 대조적인 여러 사상과 주의들이 각자 힘을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했다.

빅토리아 시대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매튜 아놀드의 시 구절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며, 한 세계는 죽고 / 다른 한 세계는 태어날 힘이 없네”(Bristow 128 재인용)에서 보듯 이 시대는 기존의 사상과 이념이 힘없이 회의와 의심에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큰 이념이 필요하지만 역부족을 보이는 시대와 같다. 불확실성과 회의의 시대에 예술가들은 그 불확실성 안에서 신념과 확신을 찾으려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을 말할 때 정전(canon)에 속하는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이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시인들이 존재한다. 브리스토(Bristow)가 편집한 비평서인 『빅토리아 시의 캠브리지 지침서』(*The Cambridge Companion to Victorian Poetry*)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정전 작가인 테니슨, 아놀드, 브라우닝 외에 당대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나 후대에 와서 빛을 보지 못한 엘리자벳 베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 알저논 스윈번(Algernon Swinburne)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는 19세기의 대표적인 여성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

의 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로제티는 정전 작가에 비해 높이 평가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와서 페미니즘 비평가들에 의해 다시금 발굴되어 많은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인이다. 로제티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빅토리아 시대 여성 전체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사회적, 종교적 압박에 대해 말하기 위해 여성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19세기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시대에 종교 시인으로서 압박에 복종했던 시인이면서 자기단념과 자기표현의 시를 창작한 로제티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당시 가장 번성한 영국의 국가적인 권력, 부와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점점 많은 여성이 직업노동에 참여했으나 재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참정권도 없었다. 여성은 결혼할 때 전혀 독립적인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었다. 자신의 돈을 가질 권리가 없으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자녀들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19세기 말기에 이르러서 재산 소유권과 선거권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 페미니스트의 개념이 널리 퍼지고, 차별적인 법이 폐지되고 여성의 선거권 운동이 탄력을 얻게 된다.

19세기의 교육은 계급별, 성별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교육의 면에서 19세기 여성에게는 역사, 지리, 문학, 회화, 무용, 음악, 자수, 프랑스어 등과 같은 분야의 한정된 교육만 허락되고, 수학, 법학, 철학, 물리학, 공학, 예술 등은 남성적인 분야라고 믿었다. 여성의 교육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여성이 대학에 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여성은 학문을 하기 위한 지성이 없다고 믿거나, 심지어 학문은 여성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여성이 학문을 하면 육체에 병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성은 “사회의 장식물”(ornament of society)로 남아 있어야 했다. 빅토리아 여성의 삶은 존중, 모성애,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뜻하고 존중 가득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모습이 19세기 여성의 우상이었다. 사회는 이러한 가정적인 모습과 모성애의 완벽한 그림을 여성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본받아야 할 이념으로 믿고 그것을 여성에게 항상 기대했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므로, 빅토리아 여성은 사회의 장식물이

며 남편에게 종속되어있는 존재이고, 남편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명성과 지위를 제공하는 연회를 베푸는 등의 활동을 하는 순종적인 아내가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

위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여성의 자리는 가정 내에서만 존재하고 오늘날 생각하는 교육의 기회란 없었다. 그러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여성을 교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였다.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은 사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교회의 가르침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종교적인 이야기나 비유집을 읽었다. 19세기 여성 종교작가들에게 기독교는 많은 종류의 글에 작품의 주제가 되고, 그들의 글을 정당화할 수 있게 권위를 부여해주었다. 초기 빅토리아 시대의 정기간행물인 『빅토리아 여성 잡지』(*Victorian Lady's Magazine*)(1834-49)는 빅토리아 여성성의 개념 형성에 기독교와 종교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Gray 263).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기독교적인 글을 통하여 신성한 지식에 다가가는 데 존재했던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정립할 수 있었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누이인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당시의 뛰어난 시인, 찬송가 작사가, 기독교 산문작가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신념과 확신을 자신의 신앙에서 찾으려한 로제티는 여성성의 요구와 작가로서의 예술적 창의성을 기독교적 경험을 통해 시로 표현했다. 이제까지 로제티의 많은 종교시들은 고통, 단념, 자기 부인 등의 단어로 묘사되었다. 한 예로 수잔 구바와 산드라 길버트는 로제티의 시를 “단념의 미학”(aesthetic of renunciation)이라고 명명하며(564), 고통과 인내의 시, 순종과 단념의 시로 이해한다. 로제티 시의 화자는 고통을 감내하는 금욕적인 모습으로 여성으로서의 낭만적인 욕망,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한다고 해석했다.

로제티의 자기 부정과 단념은 19세기 시대상황에서뿐 아니라 19세기의 종교 특히 국교도·옥스퍼드 운동의 트랙테리언리즘(Tractarianism)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¹⁾ 존 케블(John Keble)과 같은 트랙테리언리즘의 지도자들은 금욕적이고 매우 엄격한 면이 있어서 어떤 점에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

게 여기거나 자기 부정, 자기 소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볼 때,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선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가치가 낮아지고 자기를 소멸시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로제티는 트랙테리언리즘의 자기 부정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여성 시인으로서 자기표현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로제티의 작가로서의 예술적인 면, 창조성이 드러나며, 역설적으로 우리는 금욕주의와 자기 부인의 생산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로제티의 금욕주의적인 시가 여성의 욕망과 영적인 힘의 관습적인 면을 재조성하게 하여 남성 작가 위주의 종교시에 여성 종교시의 전통을 새로이 가능하게 했으며, 19세기 여성의 영성에 자기 단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로제티가 신앙을 표현한 매체가 시인데 트랙테리언리즘 역시 시를 신앙의 표현 매체로 이용한다. 시가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영향력 있는 빅토리아 시대 성직자들이 문학 비평가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옥스퍼드 운동의 주요 신학자인 존 케블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문학이론과 신학을 결합하여 기독교 신앙이 시라는 형태를 통해 만들어지며, 시는 국교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필수적인 신학적인 수단임을 주장한다(Bristow 164).

이와 같이 트랙테리언리즘에서는 기독교의 신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시의 역할을 중시하는데, 이는 시가 종교적인 정서를 표출할 때 가장 적절한 배출구와 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매우 고양되고 영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시에 트랙테리언리즘 시는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세익스피어 시대 이후 영어로 쓰인 시 가운데 시장성의 면에서 가장 성공한 시라고 여겨질 정도였다(Prickett 279). 이것은 존 케블의 『그리스도인의 한 해: 연중 주일과 축일에

-
- 1) 로제티의 작품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국 국교의 심미적이고 정서적이고 성례적인(ritualistic) 면을 강조했던 트랙테리언리즘(Tractarianism)과 연관된다. 트랙테리언리즘이란 용어는 19세기 초 영국 국교회에 가톨릭 부흥운동인 옥스퍼드 운동(Oxford Movement)의 초기(1833-1841)에 옥스퍼드 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90편의 소책자(tract)를 배부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옥스퍼드 운동의 초기 단계를 트랙테리언리즘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시로 나타낸 명상』(*The Christian Year: Thoughts in Verse for the Sundays and Holidays throughout the Year*)의 판매량이 뒷받침해주는 명백한 사실이다.²⁾ 이 시집의 인기로 존 케블은 1831년 옥스퍼드 대학의 시 전공 학장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책의 내용은 일 년 동안 국교도의 종교적 의례(rituals)를 시로 쓴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트랙테리어나즘이란 용어를 정의해주는 소책자인 『시대를 위한 소책자』(*Tracts for the Times*)가 출판된 시기(1833-1841)는 십 년이 못 되지만, 그 영향은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종교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로제티는 존 케블의 『그리스도인의 한 해』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Hughes 150). 케블의 유보의 원칙(Doctrine of Reserve), 운율, 연의 형식 등이 로제티의 시학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테니슨(G. B. Tennyson)은 빅토리아 시대 종교시에서 문학과 종교의 균형 잡힌 연구를 강조하면서, 시에서 트랙테리어나즘 종교시의 진정한 계승자가 바로 로제티임을 주장한 바 있다(198).

로제티는 트랙테리어나즘의 특징들을 시에서 이용하여 자기 단념과 자기표현을 드러낸다. 트랙테리어나즘은 교회의 성례성사(rituals)를 매우 중요시하여 의식주의(Ritualism)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트랙테리어나즘에서는 종교적, 영적인 진리의 외형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Holy Communion)이다. 로제티의 대표적인 장시 『도깨비 시장』(*Goblin Market*)에는 리지(Lizzi)가 자매 로라(Laura)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에서 도깨비들의 과일을 먹고 마시게 하는 상징적인 성만찬이 등장한다. 로제티의 초기 작품으로 사후에 출판된 『모드』(*Maude*)(1850년 저작, 1897년 출판)에도 주인공의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심리적 갈등 요인을 형성한다.

2) 이 책은 1827년에 출판되었고, 그 후 50년간 매년 약 일만 권이 판매되어, 1873년 158판까지 인쇄되어 약 375,000권이 영국에서 판매되었다. 이것은 통계상 영국인 6명당 1명이 이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Hughes 141). 강림절 주일(Advent Sunday), 예수 승천일(Ascension Day), 성회 수요일(Ash Wednesday), 성탄절(Christmas Day), 부활절(Easter Day), 예수 공현 축일(The Epiphany), 성 금요일(Good Friday), 종려주일(Palm Sunday) 등 일 년 중 매일의 축일의 시를 모은 시집이다.

즉 『모드』의 주인공인 소녀 모드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옥스퍼드 운동의 대표자 가운데 한 명인 에드워드 퓨지(Edward B. Pusey)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죄의식은 퓨지의 세상의 악에 대한 강조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퓨지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모드』의 ‘세상 것의 헛됨’(vanity of vanities)이라는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멀리하고 자기 안의 죄의식에 침잠하여 있었으나 작품의 말미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성만찬에 참여하며, 신앙을 시로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로제티는 트랙테리언리즘의 성례 중심주의인 퓨지주의(Puseyism)에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트랙테리언리즘의 유보의 원칙에도 영향을 받았다. 유보의 원칙(Doctrine of Reserve)은 간접성, 불확실성, 숨김, 감춤, 의미를 뒤로 미루는 것 등과 연결되는데 로제티의 『모드』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사이먼 험프리즈(Simon Humphries)는 로제티의 책의 편집자로서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왜 말없음, 심지어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시에 필수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 로제티에게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의문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보았다. 그 의문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로제티의 쉼 없는 정신은 불확실한 것에 더욱 열정을 가졌다. 의미와 종결을 유보함으로써 시는 진리가 보인다 해도 희미하게만 보이는 세상의 삶의 조건을 목도한다.

“We can understand why reticence, even radical uncertainty should be essential to the poetry. We have seen that, for Rossetti, to live in the world is to live with questions that may only ever be resolved when this world has passed away. Rossetti's restless mind is more excited by what is uncertain. It is through its withholding of meaning and of closure that the poetry witnesses to the condition of living in a world where truth is seen only darkly, when it is seen at all.(xxxvi)

로제티 시에서 의미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 불확실성의 강조 등은 유보의 원칙과 연관지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자서전적인 초기 작품 『모드』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주인공 모드의 비밀스러움, 절제, 침묵, 죄의식의 문제는 트랙테리어니즘의 퓨지주의, 유보의 원칙과 연계할 수 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단념하는 모드가 동시에 역설적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시로 자기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를 숨기면서 드러내는 트랙테리어니즘의 측면과 상통한다. 특히 『모드』에서 소녀 모드가 쓴 시 「세 수녀」("Three Nuns")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으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시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종종 이 시만 별도로 연구되기도 한다. 모드의 자기 단념과 자기표현의 과정을 트랙테리어니즘의 퓨지주의와 유보의 원칙, 그리고 시 「세 수녀」를 통해 고찰해볼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시인 로제티가 자신의 신앙을 시로 표현하고 종교시라는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어 17세기 형이상학시인 조지 허버트를 잇는 훌륭한 종교시를 창작했다는 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모드』(*Maude: Prose and Verse*)는 로제티가 19세 되던 1850년에 쓴 중편소설(novella)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산문과 시의 두 가지 장르의 형식을 함께 취한다. 그러나 팔라조(Lynda Palazzo)가 말했듯, 로제티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여 시를 이야기 속의 중요한 곳에 배치하여, 이야기가 시에 대한 배경을 밝히고 해설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10). 『모드』는 로제티의 사후, 오빠인 윌리엄 마이클 로제티가 1897년에 출판하였다. 『모드』는 시를 쓰는 열다섯 살의 소녀 모드 포스터(Maude Foster)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제티 자신의 삶을 투영한 반자서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모드의 자기 발견과 심리적 성숙을 그린 성장 소설로 보기도 한다. 작품은 모드를 포함한 네 명의 소녀 즉, 아그네스, 메리, 막달린이 여성으로 성숙하고 변모해

가는 과정을 다룬다. 이들은 모드의 더블(double) 즉 대안적인 자아이기도 하다(Gilbert 551). 로제티는 『모드』를 통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젊은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미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각각 결혼, 수녀원, 시인으로의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네 소녀들 중 메리는 결혼하고, 막달린은 수녀원을 선택하여 각기 자신이 선택한 삶에서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모드는 자신의 삶의 선택에 고민을 거듭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드』에는 로제티의 전기적인 모습이 소녀 모드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로제티의 사교계에 대한 태도와 종교적인 의무감이 그러하다. 로제티가 병약했던 것처럼 모드 역시 항상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안색이 창백하다. 한 장면에서 모드는 어머니가 들어오자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황급히 감추는데, 독자는 뭔가 비밀스럽고, 창백한 안색에 병약한 이미지의 모드를 보게 된다. 모드는 수줍음, 절제, 숨김, 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모드는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가 쓴 시를 칭찬하는데 그로 인해 자만심이 생기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 모드는 자만심을 죄로 여기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여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을 하거나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겠노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보면 자기를 감춤, 자기 단념은 죄의식과 연관성이 있다. 즉 자기를 감춤으로써만 자기 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죄의식 중에 또 하나는 모드가 성만찬(Holy Communion)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자신의 교구의 교회에 가지 않고, 멋진 교회 음악에 매료되어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의 찬양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즉 모드는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교회 성직자의 성례복과 성가에서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위선적이라 여긴다. 모드가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만찬을 거부한 장면은 로제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치 없고 부족한 존재로 여긴 것과 대응을 이루며, 이것은 트랙테리언리즘의 대표자 퓨지의 주장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퓨지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인간의 영혼과 함께 한다고 명상하고,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영혼에 함께 존재하게 되는 문과 같다고 생각했다(Chadwick 39). 초기의 트랙테리언리즘 대표자들은 공적인 예배가 기도서의 기도문을 따르기를 원했다. 그들은 교회 안의 기구들, 성직자의 성례복, 예배의식에서의 절차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다. 사제가 되는 신품성사, 성만찬, 세례의식에 대한 트랙테리언리즘 신학의 관점은 예배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이러한 개념이 공적 예배의 형식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 퓨지는 1830년대 후반 런던 올바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형식을 중시하는 의식주의(Ritualism)를 주창하였다. 의식중심주의 교회로 알려진 올바니가의 크라이스트 교회에 로제티가 참석한 것으로 보아, 로제티는 의식 중심주의 미학과 트랙테리언리즘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퓨지는 크라이스트 교회의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그곳에서 설교를 하여 많은 일반 신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크라이스트 교회가 일요일과 축일마다 성만찬 의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고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모드』에서 주인공 모드가 성만찬 거부로 심적 고통을 겪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로제티는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이게이트의 매춘부들의 갱생기관(St. Mary Magdalene House of Charity)에서 수녀처럼 봉사했다. 자신은 정작 수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없다고 여겼다. 이러한 신 앞에 자격 없음이라는 의식에 대하여 퓨지의 생각은 이렇다. 퓨지는 자신이 상처투성이이고, 죄로 얼룩져있으며, 괴물과 같고, 자신이 혐오스러우며, 심지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병으로 뒤덮인 것과 같다고 말한다. 메이슨(Emma Mason)은 이러한 퓨지의 슬픔에 찬 자의식을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오빠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죽음 앞에서 하는 말과 유사함을 언급한다(119). 단테 가브리엘의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회한에 대하여, 크리스티나는 자신도 같은 시련을 겪었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을 때, 고해성사와 용서, 영적인 상담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로제티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은 『모드』에서 15살 소녀 모드의 영적인 고통에 나타난다. 모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거부한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모드는 이러한 강렬한 결속에 영적인 혼란을 느끼고, 성만찬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모드는 사촌 아그네스와의 대화에서 자신을 위선자로 느낀다고 하자, 아그네스는 모드가 새로 쓴 시를 읽으며, 자신도 모드처럼 결점에 대하여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나도 너처럼 내 결점에 대해 민감하다면 좋겠어. 그렇지만, 너는 위선자가 아니야. 이 소네트의 한 줄 한 줄이 너의 진심을 증명한다는 걸 모르겠니?”

"I only wish I were as sensible of my faults as you are of yours. But a hypocrite you are not: don't you see that every line of these sonnets attests your sincerity?" (SP 35)³⁾

그러나 모드는 여전히 성만찬을 거부한다. 성스러운 것을 모독하지 않고 거기에 이 죄까지 더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가장 적당한 때에 성만찬에 가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한다.

“내일은 성만찬을 받지 않을 거야, 아니야, 적어도 성스러운 것을 모독하지는 않겠어. 나머지 모든 것에 이것까지 더하지는 않겠어.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가장 맞는 시간에 가야겠다고, 바로 가지는 않을 거야, 더 이상 가지 않겠어.”

"I shall not receive tomorrow……. No: at least I will not profane Holy Things; I will not add this to all the rest. I have gone over and over again, thinking I should come right in time, and I do not come right: I will go no more." (SP 35)

3) Kent, David and P. G. Stanwood, eds. *Selected Prose of Christina Rossetti*. 1998. 『모드』(*Maude: Prose and Verse*)는 위의 산문집에 실려있으므로 인용은 SP로 표기하고 쪽수를 병기함.

아그네스와 메리는 선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드는 다시 제단 앞에 나갈 수 있기까지는 자신이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써 성스러운 제단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다(Someday I may fit again to approach the Holy Altar, but till then I will at least refrain from dishonouring it)(SP 36). 아그네스는 종교적인 원칙의 면에서 볼 때 성만찬을 거부하는 것은 영혼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믿고, 모드를 설득해서 성만찬을 받게 하려한다. 왜냐하면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의 교리문답에서 세례와 성만찬은 구원에 필요하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아그네스의 입을 빌어 로제티는 모드의 성만찬의 거부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임을 밝힌다(D'Amico, *Faith, Gender and Time* 38). 독실한 국교도로서 로제티는 성만찬에 있어서 국교회의 『공동기도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성스러운 의식이다. 성만찬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D'Amico 77).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로제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로제티는 자신이 쓴 기독교 산문 『심연의 얼굴』(*The Face of the Deep*)에서 성만찬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여,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주소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소서.
당신은 사랑으로 당신의 몸과 피의 축복받은 성만찬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소서.
사랑으로 당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나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he that cometh to Me shall never hunger."
Lord Jesus, evermore give us this Bread, give us Thyself. Thou who
in love givest Thyself to us in the Blessed Sacrament of Thy Body

and Blood, grant us grace in love to receive Thee, in love to retain
Thee, in love to be joined to Thee eternally. (Rossetti 543-44)

성만찬은 인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천국에서 영혼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예시한다. 모드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자책하며 성만찬을 멀리하지만, 이후 다시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인식하고 성만찬을 받은 후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모드가 퓨지의 영향을 받아 자의식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성만찬을 계속해서 미루던 것과 같이, 모드는 시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시를 많이 쓰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구 사양한다. 메리 아스노(Mary Arseneau)는 로제티가 『모드』에서 주인공 모드의 ‘표시와 시’(display and poetry)의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시적 방법으로 트랙테리언리즘의 유보의 원칙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67). 이것이 로제티 시 스타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절제, 비밀, 신비, 단념, 겸허함, 초연함, 거리감 등을 생산하는 배경이 된다. 모드는 자신의 시를 사람들이 돌려 읽고 감탄할 때, 숨기고 싶으면서도 드러내고, 짐짓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가장하는 것과, 정직함, 겸양과 자기 과시의 양면적 태도로 인해 스스로 위선자라고 느낀다.

여주인공 모드의 개인적인 성숙과 예술적인 발전은 유보와 종교적인 헌신의 힘에 의한 예술의 추구로, 감상적인 슬픔을 배제하고 지나친 과장을 거부하고 진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트랙테리언리즘의 유보의 원칙은 아이작 윌리엄스(Isaac Williams)의 소책자(Tracts) 80과 87에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보에 대하여’(On Reserve in Communicating Religious Knowledge)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종교적인 지식은 성스러운 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신성함에 적합하도록 표현에 절제와 간접성을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에게 전할 때는 점진적인 계시의 방법 즉 간접적인 용어를 쓴다. 종교적인 진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의 수준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유보의 방법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언어는 무한한 신성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을 원용하여, 시인은 시에서 유보의 방법을 활용한다.

유보의 원칙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 모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 아스노(Mary Arseneau)는 모드가 대조적인 두 가지 사이에 서있다고 말한다. 즉 영국 국교도로서의 개인적인 성스러움, 트랙테리어나니즘의 시이론, 유보의 원칙을 한 축에 두고, 다른 한 축에는 시인으로서의 야망, 여성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도의 충돌 사이에 서있는 것이다(7). 모드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며 베일로 가리거나 상징을 통하여 표현하려고 의도한다. 예술가적인 절제, 자기 소멸 등이 유보의 원칙에 해당된다.

작품 속에서 서술 관점을 알아보면 더욱 유보의 원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모드』는 1인칭 화자 모드의 제한적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함으로써, 독자에게 해석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준다. 판단을 억제하고 독자의 손에 판단을 맡기면서, 서술자는 이야기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유보한다. 서술의 방법 가운데 해설은 없이 4명의 여주인공 모드, 메리, 아그네스, 막달린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독자는 해석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드』의 거의 첫 장면에서 모드와 메리는 거실에서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어머니가 등장하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모드는 재빨리 자신이 쓰고 있던 글을 은밀히 덮고 공책을 잠그는 한편, 메리는 꽃꽂이에 열중한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 모드가 애써서 자신의 글을 숨기려하는 것에서, 독자는 모드의 글쓰기와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집안에서의 가사를 돌보고 가정적인 메리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메리의 생일 파티로 모두 모여 소네트 짓기 경연 대회(bouts-rimés)를 할 때, 메리는 시는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말하면서, 2행 연구(couplet)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 후에 메리가 결혼하고 나서 보내온 편지는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 단락이 같은 주제로 반복되고, 유보라든가 신비로운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드가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쓴 글도 직접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유보되고 절제된 의미는 독자가 쉽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나칠지도 모르지만, 쉽게 잊히지는 않게 된다. 1부의 마지막과 2부의 첫 문장 사이에 설명은 전혀 없지만, 모드가 아그네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 사고에 대해 들었니?”(You have heard of my mishap?)라고 말함으로써 독자는 모드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감지하게 된다. 아스노(Arseneau)는 이것을 유보의 원칙으로 설명한다. 즉 서술자 로제티는 마차 전복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피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침묵 속에 묻고 감춘 것이다 (86).

마차 전복 사고로 인한 극심한 옆구리의 통증으로 소파에서 지내게 된 모드는 아그네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쓴 시 「세 수녀」(“Three Nuns”)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로제티는 모드가 쓰는 시를 통하여 자신의 비전을 나타낸다. 「세 수녀」는 로제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이다. 모드는 아그네스에게 세 수녀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째 수녀는 금발이고 곱슬 머리이기 때문에 자신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영적 갈등을 겪는다는 점에서 자신과 유사하고, 사랑에 빠진 둘째 수녀는 메리와 닮았고, 셋째 수녀는 실제 수녀인 막달린이라고 주장한다.

로제티는 『모드』에서 여러 등장인물의 시각을 통해 다른 도덕적 관점을 나열하며, 독자가 제시된 여러 관점의 상대적 장점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둔다. 하나가 아닌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는 시인이 시와 거리를 두게 한다. 「세 수녀」에서 모드는 시적 화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시와 시의 서술 문맥은 베일로 가려지고, 여러 층위로 쌓여있고, 목소리들의 겹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유보의 원칙의 특징이기도 하다. 스멀더스(Sharon Smulders)는 「세 수녀」가 『모드』의 다양한 합창 효과에 적합한 절정(climax)을 표현한다고 말한다(29).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같은 서술 내에 배치되어 서로를 달래고 설득하고, 마치 3부 합창처럼 조화를 이룬다.

시의 어떤 면은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보호되고, 간접적이고, 통제되고, 절제된다는 점에서 모드가 유보의 원칙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을

놓치든, 표어를 꼭 읽어줘. 함께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수녀들이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작은 노래를 만들어낸다.”(But whatever you miss, pray read the mottoes. Put together they form a most exquisite little song which the Nuns sing in Italy”)(SP 40). 개별 화자인 세 명의 수녀가 각기 다른 음조로 노래하면서 하나의 표어 아래 아름답고 훌륭한 화음을 완성한다.

「세 수녀」의 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수녀의 삶은 세상에 지치고, 종교 생활이 큰 짐과 같아 인내하는 삶이며, 그녀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고통 속에 놓여있다. 둘째 수녀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마음의 쉽고 휴식으로서의 죽음을 갈망한다. 독자들에게 수녀원 생활이 사랑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만든다. 셋째 수녀는 위의 두 수녀가 가지는 삶의 원망과 불안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포부의 면에서 시적인 영감을 이해하고, 다른 두 수녀에 비해 탁월한 영적 성장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어로 되어있는 세 수녀의 시의 서사(epigraph)를 각각 살펴보면 변화과정이 뚜렷이 드러난다. 첫째 수녀의 시의 서사는 “이 마음은 한숨짓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네.”(This heart sighs, and I know not why) 둘째 수녀의 서사는 “사랑 때문에 한숨짓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에겐 그렇지 않네요.”(It may be sighing for love, but to me it says not so) 셋째 수녀의 시의 서사는 “대답해주오, 내 마음이어, 그대는 왜 한숨짓는가? 내 마음이 응답하네,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한숨짓는답니다.”(Answer me, my heart, why do you sigh? It responds: I want God, I sigh for Jesus) 첫째 수녀는 마음의 한숨과 고뇌가 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둘째 수녀는 자신의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인하여 한숨짓는 이유는 사랑일 거라고 대답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한탄한다. 셋째 수녀는 마음속의 한숨에 의문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답도 듣는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며 예수님을 위해 한숨짓는다는 대답으로 의문이 종결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첫째 수녀는 현재의 고통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천국의 빛을 기다려야하는 것을 불평한다. 현재의 슬픔과 과거의 죄로 인하여 수녀원에서의 헌신

적인 생활을 마지못해 따르고 있다.

그림자, 벽의 그림자
그대의 그늘을 내 위에 펼치라,
무거운 관보로 나를 두르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
한 때는 기쁨이 최선이라 여겼건만,
이제 나는 휴식을 원할 뿐.

Shadow, shadow on the wall
Spread thy shelter over me;
Wrap me with a heavy pall
With the dark that none may see.

...
Once I thought that joy was best,
Now I only care for rest. (SP 41)

첫째 수녀의 시는 한때 아름다운 금발머리로 사랑받았으나, 이제는 세상에 지치고 헛됨과 근심만 남아, “노래하라, 나로 하여금 잊게 하라 / 현재의 슬픔과 과거의 죄를”(Sing on, making me forget / Present sorrow and past sin)(SP 42) 이라고 노래한다. 기도와 금식으로 창백하게 되어 현재의 고통에서 풀려나게 될 천국의 기쁨을 기다린다.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어린 아이가 되어 멀고 먼 초록 숲에서 클레마티스 꽃과 야생 히아신스를 꺾는 것을 꿈꾼다.

거기에서 아직 아이였을 때, 나는 생각했네
나는 꿈에서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비밀,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시냇가의 백합이
처녀의 순결처럼 순수한,

너무 순수해서 드물게 보일 때까지, -
아,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으리.

There, while yet a child, I thought
I could live as in a dream,
Secret, neither found nor sought:
Till the lilies on the stream,
Pure as virgin purity,
Would seem scarce too pure for me:-
Ah, but that can never be. (SP 43)

천국에서의 신비로운 합일보다 순수한 어린 시절의 초록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크다. 그래서 첫째 수녀의 시는 천국에 대한 희망찬 기대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순수성에 대한 절망으로 끝난다.

둘째 수녀는 이루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세상의 사랑의 기억에 고통스러워하고, 쇠약해져서 휴식으로서의 죽음을 원한다.

오, 죽음은 달콤하여라, 나는 연약하고
지쳤으니 죽음이 휴식을 주리라.

...

오, 상하고 피 흘리는 마음을
싸매어주는 죽음은 달콤하여라.

...

그리고 내 인내에 나의 주님이
넘치는 큰 보답을 주실 것이라네.

그렇다, 보답을 거의 받았네,
영광의 관과 종려나무.

Oh sweet is death; for I am weak
And weary, and it giveth rest.

. . . .

Oh sweet is death that bindeth up
The broke and the bleeding heart.

. . . .

And for my patience will my Lord
Give an exceeding great reward.

Yea, the reward is almost won,
A crown of glory and a palm. (SP 44)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하지만 영원한 힘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제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고통에서 벗어나 잠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도하노니 다시 깨어나면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And pray that I may wake again
After His likeness, who hath said
(Faithful is He who promiseth,
We shall be satisfied Therewith. (SP 44)

둘째 수녀는 위의 시의 3행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for he is faithful that promised; Hebrews 10:23)라는 성경 히브리서를 인용하여, 천국의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다. 첫째, 둘째 수녀의 시를 통해 모드가 쓴 세 수녀의 시가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첫째 수녀는 과거의 회한, 현재의 고뇌로 어린 시절을 꿈꾸며 절망하는 모습이고, 둘째 수녀 역시 사랑에 절망하여 달콤한 죽음을 원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도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천국에서 만족할 것이란

희망을 보여준다.

셋째 수녀는 소명을 받들고 사는 것이 항상 쉽고 편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희생은 땅 위의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보상을 줄 것임을 확신한다. 1, 2연에서는 첫째, 둘째 수녀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안식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과 동일한 셋째 수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내 마음은 자유로이 태어난 새와 같아
내 잔인한 가슴에 갇힌,
퍼덕거리고, 또 퍼덕거리는,
노래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네.
그러나 새장의 창살에 날개를 쳐서,
자신의 등지를 아는 것처럼
구름 낀 서쪽 너머 멀리에 있는.

내 영혼은 숨겨진 새과 같아
끈적끈적한 진흙에 막혀서,
위로 향한 신음소리에 고통당하며,
헤치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네.
잔디 위로, 풀밭 너머,
위로, 위로 햇빛 속으로,
황혼이 더 이상 잿빛으로 변하지 않는 곳.

My heart is as a freeborn bird
Caged in my cruel breast,
That flutters, flutters evermore,
Nor sings, nor is at rest.
But beats against the prison bars,
As knowing its own nest
Far off beyond the clouded West.

My soul is as a hidden fount

Shut in by clammy clay,
That struggles with an upward moan;
Striving to force its way
Up through the turf, over the grass,
Up, up into the day,
Where twilight no more turneth grey. (SP 45)

새장에 갇힌 새의 비유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억압하는 것은 새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신 속에 갇혀서 피덕거리는 새의 모습이 2연에서는 진흙으로 막힌 샘물로 나타난다. 영혼이 신선하게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 진흙으로 막혀버린 샘의 비유를 이용한다. 그러나 막혀버린 것을 뚫고 위로 올라가려고 고통스러워하며 애쓴다. 그리하여 3연부터는 희망찬 모습을 보여준다.

오, 참 포도나무의 포도는
천국에서 자라는,
포도 덩굴이 생명나무에 합쳐져서
지혜롭게 만든다네.
생명 샘물 옆에서 자라서
그 달콤한 물이 차올라서
눈물 고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네.

Oh for the grapes of the True Vine
Growing in Paradise,
Whose tendrils join the Tree of Life
To that which maketh wise.
Growing beside the Living Well
Whose sweetest waters rise
Where tears are wiped from tearful eyes.

포도 덩굴(True Vine)은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I am the true grapevine) 포도는 한 송이에 많은

가지가 있고 수많은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고 그런 짐에서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포도나무가 창세기의 생명나무(Tree of Life)와 합쳐진다. 생명나무란 지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생명 샘물이 있어서 이 모든 묘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결의 관계, 천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그 교만과 자랑 때문에 소멸할 때, 손으로 짓지 않은 도시, 즉 천국이 나를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6년까지 천국의 소망을 담은 시행이 이어진 후, 7연에서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단념의 태도가 나타난다.

나는 태양을 보지 않겠네,
 매일 밤 태양이 진다네.
 천국의 밟지 않은 궁전에서
 내 왕관은 더욱 빛나리니.
 그리하여, 잘 설립되고 건축된
 새 예루살렘에서
 내 발로 직접 빛을 밟으리라.

I will not look upon the sun
 Which setteth night by night:
 In the untrodden courts of Heaven
 My crown shall be more bright.
 So, in the new Jerusalem
 Founded and built alright
 My very feet shall tread on light. (SP 46)

위의 시 5행-7행의 새 예루살렘에서 내 발이 빛을 밟으리라는 구절은 가슴 벅찬 희망의 형상화이다. 다음 연에서 셋째 수녀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재물로 보물을 사서 쇠하지 않는 곳에서 하얀 베일을 쓰고, 내가 질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한다. 세상의 것을 버린 것이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되지 않으며, 이제 셋째 수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한 때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던 것을.
 이제 내가 약해져서,
 지연된 희망이 내 마음을
 마비시키는 듯하네, 나는 그러나 간청하네,
 그리고 말하네, 내 입술은 말을 못하지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Until I grew to love what once
 Had been so burdensome.
 So now when I am faint, because
 Hope deferred seems to numb
 My heart, I yet can plead; and say
 Although my lips are dumb: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SP 47)

셋째 수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고, 한 때는 너무나 큰 짐이었고, 모든 희망이 연기되어 마비된 것 같았던 것이 이제 마지막 행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담대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구절을 읊조리게 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요한계시록 22:17) 로젠블룸(Dolores Rosenblum)은 세 수녀의 시에 대하여 첫째, 둘째 수녀의 시가 대화라면, 그에 대한 답이 셋째 수녀의 시라고 말한다(183). 시는 죽음으로 슬픔이 끝나기를 바라는 퇴행적인 소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슬픔의 컵을 마시고 신과의 소통(자신의 아름다움을 기도, 금식, 십자가와 맞바꿈)을 하겠다는 결의를 통하여 천국의 영역을 향하여 담대하게 지상의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모든 말은 궁극적으로 침묵의 기도, 무언의 몸짓으로 찾아들게 된다.

모드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이른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한 삶의 결과로 인한 절망과 우울로 가득한 삶의 중

말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아스노(Arseneau)에 따르면, 마차 전복 사고를 당한 후의 모드는 이전보다 더욱 뛰어난 작품을 쓰며, 이전의 삶의 불만족, 공격성, 자기 비난을 초월하게 된다. 마치 모드의 상처 입은 옆구리와 부러진 수족이 그녀에게 세례를 준 것과 같이 그녀를 일종의 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고를 당한 모드는 죽지만 역설적으로 살아난다(*Recovering* 86). 즉 모드의 마지막 시들은 모드가 죽기 전에 영적인 평화를 찾았음을 암시한다. 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 죽음 후의 새로운 삶을 희망찬 어조로 말한다. 특히 모드가 죽기 전날 아침에 쓴 마지막 시에서 모드는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시인의 목소리로 희망의 봄을 노래한다.

예수가 영혼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나를 따르라”

...

... 그것은 그대의 최고의 힘 너머

짐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니, 그것을 지라,

그는 그대가 약한 것을 안다네, 그리고 그대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어둠의 힘을 제어할 것이니.

그가 그대와 함께 하리라, 도우고, 힘을 주고,

충분할 때까지. 보라, 그가

그대를 부르는 날이 오리니, 그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리라, “겨울이 지나갔도다, 그리고 봄이

오네. 일어나라, 내 사랑아, 오라.”-

What is it Jesus saith unto the soul?-

“Take up the Cross and come, and follow me”

...

... It will not weigh on thee

Beyond thy utmost strength: take it, for He

Knoweth when thou art weak, and will control

The powers of darkness that thou needst not fear.

He will be with thee, helping, strengthening,
 Until it is enough: for lo, the day
 Cometh when He shall call thee: thou shalt hear
 His voice That says: "Winter is past, and Spring
 Is come; arise, My Love, and come away."- (SP 51)

『모드』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시를 통하여 모드가 느꼈던 육체의 연약함, 불확실성, 비밀스러움, 신비, 진정한 의미의 유보, 침묵이, 마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 다미코(D'Amico)는 크리스티나 로제티 시에 나타나는 비밀스러움, 말없음, 침묵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이 비밀은 그녀의 신앙이라고 결론짓는다(177). 이것이 로제티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빅토리아 사회에 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III.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중편소설 『모드』에 나타나는 트랙테리어니즘의 특징적인 면들, 유보의 원칙, 성만찬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 등을 내용의 전개와 함께 다루어보았고, 전체 내용의 절정에 해당하는 시 「세 수녀」를 살펴보았다. 소녀 모드는 퓨지주의의 영향으로 죄의식과 자의식으로 인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퓨지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드는 시인으로서 뛰어난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자기표현을 하지만, 동시에 죽기 전에 자기가 쓴 시를 아그네스에게 부탁하여 감추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드의 심리적인 갈등은 시 「세 수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독립되고 성숙한 자아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보여줌으로써 화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모드』의 마지막 시는 희망의 봄을 부르는 로제티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9세기의 국교도 내의 가톨릭 부흥운동인 옥스퍼드 운동은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운동이지만, 역으로 로제티에게는 가장 평등하고 개혁을 가능하게 해준 운동이기도 하다(Arseneau, *Pews* 97). 로제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유보의 원칙을 이용하여 종교시를 씀으로써 여성 종교 시인으로서 영적인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기독교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로제티는 초기 소설 『모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집인 『시』(*Verse*)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트래кте리어 니즘의 원칙들을 이용하였다. 로제티의 작품의 주인공 모드는 자기를 부정하고 단념하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또한 신앙의 시를 생산하는 배경이 되어 여성의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해 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Arseneau, Mary. "Pews, Periodicals and Politics: The Rossetti Women as High Church Controversialists." *Outsiders Looking in: The Rossettis Then and Now*, eds. David Clifford and Laurence Roussillon. London: Anthem, 2004. 97-114.
- _____. *Recovering Christina Rossetti: Female Community and Incarnational Poetics*. New York: Palgrave, 2004.
- Bristow, Joseph.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ctorian Poetry*. Cambridge : Cambridge UP, 2000.
- Burlinson, Kathryn. *Christina Rossetti*. Plymouth: Northcote House, 1998.
- Chadwick, Owen. *The Spirit of the Oxford Movement: Tractarian Essays*. Cambridge: Cambridge UP, 1990.
- D'Amico, Diane. *Christina Rossetti: Faith, Gender, and Tim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99.
- _____. and David A. Kent. "Rossetti and the Tractarians." *Victorian Poetry* 44.

- 1 (2006): 93-103.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Aesthetics of Renunciation."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79.
- Gray, F. Elizabeth. "Beatification through Beautification: Poetry in *The Christian Lady's Magazine*, 1834-1849." *Victorian Poetry* 42.3 (2004): 261-82.
- Hughes, Linda K.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Victorian Poetry*. Cambridge: Cambridge UP, 2010.
- Humphries, Simon. Introduction. *Poems and Prose by Christina Georgina Rossetti*, Oxford : Oxford UP, 2008.
- Kent, David and P. G. Stanwood, eds. *Selected Prose of Christina Rossetti*. New York: Palgrave, 1998.
- Landow, George P. "Victorian and Victorianism." Victorian Web.
<<http://www.victorianweb.org/vn/victor4.html>>. 30 October 2011.
- Mason, Emma. "'A Sort of Aesthetic-Catholic Revival' : Christina Rossetti and the London Ritualist Scene." *Outsiders Looking in : The Rossetti's Then and Now*, eds. David Clifford and Laurence Roussillon. London: Anthem Press, 2004. 115-30.
- Palazzo, Lynda. *Christina Rossetti's Feminist Theology*. Basingstoke: Palgrave, 2002.
- Prickett, Stephen. "Tractarian Poetry." *A Companion to Victorian Poetry*, eds. Richard Cronin, Alison Chapman and Antony H. Harrison. Malden: Blackwell, 2002. 279-90.
- Rosenblum, Dolores. *Christina Rossetti: The Poetry of Enduranc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86.
- Rossetti, Christina. *The Face of the Deep: A Devotional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London: Society for Promotion of Christian Knowledge, 1893.
- Roth, Christine. "Victorian England : An Introduction." Oshkosh: U of Wisconsin,
<<http://www.english.uwosh.edu/roth/VictorianEngland.htm>> 28 October 2011.
- Scheinberg, Cynthia. "Victorian Poetry and Religious Diversity."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ctorian Poetry, ed. Joseph Bristow. Cambridge UP, 2000.

Smulders, Sharon. *Christina Rossetti Revisited*. New York: Twayne, 1996.

Tennyson, G. B. *Victorian Devotional Poetry: The Tractarian Mode*. Cambridge: Harvard UP, 1981.

❖ ABSTRACT

Christina Rossetti's *Maude* : Self-Abnegation and Self-Expression of a Victorian Poet

Ha Myungja

Christina Rossetti's novella *Maude* displays Tractarian influences in terms of Holy Eucharist, Puseyism, and the doctrine of Reserve. Tractarianism is High Church revival movement of nineteenth century. In the story a teenage girl, Maude went through hard time receiving Holy Eucharist due to self-consciousness and internal guilt according to Puseyism. She felt guilty when she enjoyed worldly things and outward beauty. Due to guilt Maude refused to receive Holy Communion, which is complete connection to God. Her cousin, Agnes suggested that in refusing Holy Communion Maude is following her own will not God's will. Later Maude overcame Puseyite thought of self-hatred and reconciled with her identity as a poet and a woman.

Maude oscillates between concealing and revealing, secrecy and truth, sincerity and affectation, and modesty and display. Her marvelous poetic talent makes people praise her but she withholds private feelings and attempts to divert attention from herself. Like Maude herself, the meaning of her poems is at times reserved and withheld. This tendency goes with the doctrine of Reserve in Tractarianism. The doctrine of Reserve utilizes indirect methods to reveal divine attributes because finite human being can not accept infinite God. The doctrine of Reserve sees to it that the expression will be veiled, indirect, subdued and self-effacing. Rossetti adapts a poetic method of Reserve when Maude has anxiety over 'display and poetry' and generates the reticence, secrecy, mystery, renunciation, modesty and detachment. According to Mary Arseneau, by veiling and expressing herself through symbols she can rise above the self and employ the phenomenal to suggest a noumenal reality. Thus the poetry becomes an expression of longing for the divine.

The poem "Three Nuns" exemplifies Maude's maturity and gradual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Rossetti suggests the vision full of hopes and promises of reuniting with God. In conclusion, in some sense, authoritative and conservative Tractarianism affects Rossetti both ways. On the one hand, it makes Rossetti abnegate herself and leads her to asceticism, on the other hand, it makes Rossetti express her faith in God and write amazing devotional poems such as "Three Nuns". A poem within the poem has three voices that are in perfect harmony. In the poem the first and second nun show hesitation to fully commit to God's will and the desire for the world prevents them from having heavenly joy. Third nun reveals spiritual maturity and sings new life in God where their hopes and joys begin. Rossetti expresses the procedure of spiritual growth through the poem "Three Nuns". For Rossetti, self-abnegation and self-expression both are involved in the doctrine of Reserve, Puseyism and Holy Communion.

Key Words

『모드』, 트랙테리언리즘, 옥스퍼드 운동, 유보의 원칙, 성만찬, 퓨지주의
Maude, Tractarianism, Oxford Movement, Doctrine of Reserve, Holy Eucharist,
Puseyism

논문접수일: 2011. 10. 25.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09.